

## 홍콩, "광둥성 차량 남행"시행에 맞춰 자율주행·디지털 트윈 기반 스마트 교통 인프라 본격 가동

해당국가	홍콩	기관(기업)	홍콩 교통물류국(TLB)	동향분야	기술	국토교통 기술분류	도로교통
------	----	--------	---------------	------	----	--------------	------

### □ 홍콩 교통물류국, '광둥성 차량 남행 통행 제도' 및 스마트 인프라 가동

- 홍콩 정부는 2025년 11월 15일부터 강주아오 대교(HZMB)를 통한 광둥성 차량의 진입을 허용하며, 이를 지원하기 위한 '스마트 모빌리티 및 자동화 인프라'를 본격 가동
- 좁은 도심 부지와 복잡한 교통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로봇 주차, 자율주행 셔틀, 디지털 트윈 기반 관제 시스템 등 국토교통 R&D 성과를 현장에 적용
- 시설물 내진 및 회복력 강화를 위한 '자동 주차 시스템' 도입
  - 강주아오 대교 홍콩 포트 인근에 약 1,800대 규모의 'Park & Fly' 자동 주차장을 개장하여 물리적 공간 한계를 극복하고 재해 시 차량 대피 및 관리가 쉬운 인프라 구축
  - 운전자가 하차하면 로봇 시스템이 차량을 최적의 위치로 이동시켜 기존 평면 주차장 대비 공간 효율을 30% 이상 향상시켰으며, 이를 통해 도심 유입 차량을 외곽에서 효과적으로 차단 및 관리
- 고령화 및 인력 부족 대응 '자율주행 운송 시스템\*' 실증
  -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홍콩 공항관리국과 협력하여 공항 도시와 대교를 연결하는 무인 자율주행 셔틀 시스템을 2025년 11월부터 정식 운영
  - 전용 차로에 설치된 스마트 센서와 차량 간 V2I(Vehicle-to-Infrastructure)통신\*을 통해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며, 대중교통 운전 인력 감소에 대응하는 차세대 모빌리티 표준 모델 제시
- 디지털 트윈 및 실시간 데이터를 활용한 '차세대 교통 감시 체계' 가동
  - 광둥성에서 진입하는 차량의 흐름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기 위해 인근 도로망을 디지털 트윈으로 구현하고, 교통량 변화에 따른 정체 구간을 시가 사전 예측하는 시스템 가동
  - 강주아오 대교를 포함한 주요 진입로의 시설물 변위를 감시하고, 이상 징후 발생 시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즉각적인 교통 통제 및 긴급 복구 지시가 가능한 통합 안전 모니터링 체계 강화

※ 출처 : 홍콩 특별행정구 정부 (2025.10.31). Implementation details of Southbound Travel for Guangdong Vehicles